

# 역적패당의 멸망을 선고하는 민심의 초불이 라오른다

## — 서울에서 제 11차 집중초불대행진 진행 —



초불바다가 또다시 펼쳐졌다.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의 열기가 역도를 퇴진시키기 위한 거대한 초불로 라오르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서울에서는 30만명의 군중들이 모여 《김건희특검—윤석열퇴진 제11차 집중초불대행진》이라는 대규모 초불집회를 열었다.

지난 8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남조선의 각 지역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무능과 정책과판을 폭로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려온 《초불승리전환행동》의 주최로 열린 이번 초불투쟁에 참가한 각계층 군중들은 《정치보복, 민생과판, 평화과피,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 《허위경력, 상습사기 김건희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규탄하였다.

초불집회장에는 윤석열역도로 나뉘어 김건희를 해학적으로 형상화 대형인형이 등장하여 집회참가자들의 투쟁열기를 더욱 돋우어주었다.

주목되는것은 나 어린 청소년들도 윤석열역도에 대한 퇴진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는것이다.

초불투쟁에는 《중, 고등학교학생대표학생협의회》에 소속된 각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오는 11월 5일 《제1차 윤석열퇴진중, 고등학교초불집회》를 진행

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초불 중, 고등학생시민련대》 대표는 《짧지만 윤석열(정권)기간에 중고생들을 탄압하고 온갖 류언비어를 류포시키면서 초불집회를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며 《중, 고등학생들이 윤석열(정권) 심판을 위해 광장에 나왔다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저 교복을 입고 나왔다》고 열변을 토했다.

한편 민주로총상하 노동운동단체인 화물련대는 윤석열퇴진초불투쟁과 때를 같이하여 서울의 다른 장소에서 조인 9 000여명이 참가하는 반《정부》결의대회를 개최하는것으로 초불투쟁에 합세해나섰다.

지금 남조선의 그 어디에서나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중요 분노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있다.

그야말로 온 남조선땅이 역적패당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의 대중적인 반역《정권》퇴진투쟁은 윤석열역도의 오만과 독선, 사치와 허세, 사대매국과 동족대결광풍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은 임버릇처럼 위우단《공정과 상식》을 췌버리고 측근인물들과 검찰총신, 부정부패진과자들을 자기 주위

에 끌어당겨 《검찰공화국》, 《끼리끼리 정부》, 《동아리정권》을 만드는 등 집권 첫시작부터 민심의 요구에 역행해나섰다.

선거때 내들었던 《장미빛공약》을 비누거품처럼 날려버리고도 낮뜨거울줄 모르고 로조화동역제, 로동시간연장, 재벌들의 새금인하, 재해처벌과 기업규제완화 등 99%를 외면하고 1%만을 위한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한 윤석열역도의 악정으로 금리, 환율, 물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쫓겨쳐 《3중고》에 숨줄을 짓눌려온 민생은 도란에 빠져있다.

하지만 윤석열역도는 민생은 안중에 없이 초초화취임식을 시작으로 또 수많은 《혈세》를 제 집꾸러기에 랑진하였고 미신에 빠진 녀편네와 일가족속들의 시기, 협잡의 부정부패행위들을 목인조장시켰다. 또한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정치보복에 퍼는 이 되어 날뛰고있다.

이더 그뿐인가.

이미 려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혀던 《부추적로》를 부활시키고 《북선제타격》을 떠들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우리 민족의 친년속적에게 아무하루 재침의 걸잡이도 뜻을 하고 미국상진의 매거리전략, 줄세우기전략에 무작정 추종하여 주변나라들의 시기를 건드려놓아 남조선을 동네복신세로 만

든 특등매국노도 윤석열역도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불안해서 못살겠다》,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적은 없었다》, 《《대통령》을 바꾸어야 한다》는 울분과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겠는가.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이 최악의 위기에 서 벗어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떠들며 초불행진참가자들, 반《정부》투쟁에 나선 사람들에게 대한 탄압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지만 그것은 과멸의 운명에 직면한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파쇼폭압은 결코 만능의 통치수단으로 될수 없으며 그것은 독재자들의 멸망의 시간만을 앞당길뿐이라는것은 남조선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이 실증한것이다.

한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초불처럼 남조선의 파쇼의 란무장, 사대매국의 서식지, 동족대결마당으로 만든 윤석열역적패당을 려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민심의 초불은 타올랐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권력의 자리에 계속 틀고앉아 반역정권에 매달리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반대하는 분노의 초불은 전민항쟁의 화불로 세차게 타올라 역적패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코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위기에서 벗어날 줄모르는 없었다

얼마전 윤석열역도가 《국회》에서 다음해의 주요정책방향에 예산편성정책을 반영한 그 무슨 《시정연설》이라는것을 하였다.

스 처지 날수 없는것은 역도가 《시정연설》이라는것도 우리 공화국을 또다시 악랄하게 걸고든것이다.

그 무슨 《안보현실》이니, 《북의 도발》이니를 운운하면서 미국과의 《연합방위태세》와 미국, 일과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억제력》을 강화할것이라고 기업을 토한것이지 그리하다.

까마귀 백번 울어도 까옥소리라고 동족대결에 췌들은 역도의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역도가 《국회》무대에 나서서까지 동족을 헐뜯으면서 대결약담을 늘어놓은 밑바탕에는 극도의 통치위기가 놓여있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도

의 무지무능과 독단, 동족대결과 친미친일사대매국정책으로 하여 남조선은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민생문제만 보아도 물가는 30년만에 최악으로 오르고 1990년대 금융위기에 환율이 최고로 치솟았으며 금리역시 계속 오르는 등 《교몰과, 교환율, 고금리의 3고》속에서 인민들은 말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상반년 《가계부채》는 1조 4 500억US\$에 달하여 한사람당 빚부담액은 1만 7 000US\$로 늘어났다.

오죽 살기 힘들면 사람들이 《내 삶은 생존》이라고 절규하고있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강권과 전횡, 독재정치로 하여 《국회》는 개싸움마당으로 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는 여지없이 짓밟히고있으며 이것은 사회질서와 대립,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특히 역적패당의 어리석고 무모한 전쟁대결책동으로 남조선의 《안보불안》은 시간이 갈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

《동맹강화》를 떠들며 벌려온 역적패당의 추악한 친미친일사대매국정책으로 남조선의 내비종속 역시 더욱 심화되고있고 섬나라것들이 주종관계를 강요하는사태까지 빚어지고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위기에 위기만 돌아오는것으로 하여 윤석열역도의 지지력은 바다에

떨어져 오를름을 못하고있다.

윤석열역도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시정연설》때 역도의 정치보복에 대한 불만으로 더불어 어민주당이 참가를 거절하여 《반쪽짜리 연설》이 되었고 지어 보수총내무에서도 돌아가며 망신만 시키는 역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터져나오는것을 통해서도 알수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정치보복, 민생과판, 평화과피,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분노를 터뜨리고있는것은 응당할것이다.

통치위기가 조성되면 동족을 걸고들며 거기에서 출로를 찾으려 하는것은 려대 남조선보수패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윤석열역도가 《시정연설》에서 동족대결의 악담을 늘어놓는것은 여론의 시선을 다른데로 돌려 극도의 통치위기에 서 벗어나자는데 그 비렬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역도가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별의별 총책을 다 꾸며두 거기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이미 윤석열역도에게 침을 뱉었다.

윤석열역도가 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보아야 그것은 물에 빠진자 지푸라기 잡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도처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윤석열퇴진투쟁의 불길은 머지않아 《룡와대》를 활활 태우게 될것이다.

방철용

저쪽 찌르러—

가을철 풀벌레의 처량한 소리가 가득이나 번잡한 머러통을 들추서 놓는다.

(똥, 날더러 퇴진하라구? 날 탄핵하겠나? 이러다 정말 무슨 번이 나네게 아니야?)

재수없으려면 뱀을 마셔도 이발이 깨진다고 요즘은 날에날마다 어망치당한 사건만 련발한다.

얼마전에도 《한국형3축라격체제》의 핵심인 《현무-2C》발사가 실패하고 《에이태킵스》는 발사하자마자 이더로 날아갔는지 행처불명이 되었다.

《안보》를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데 민심은 《안보불안》을 키우는 전쟁연습이라고 떠들썩하며 퇴진, 탄핵의 한조항으로 찍어놓았다.

《북풍》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조상들의 수법대로 《북위협》을 요란스레 떠들며 정세를 한껏 긴장시켜도 지지물은 오르지 않고 거꾸로 미국의 합동군사연습때문에 전쟁날까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백성들은 욱옥해가만 한다.

리명박의 《비핵, 개방, 3 000》을 슬쩍 모방하여 이름만 바꾸고 박근혜의 《통일대박》을 재간겅가 공해서 《비핵화》를 하면 《보상》을 잔뜩 하겠노라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던 시작도 매기 전에 녀마작이 되었다.

그토록 목이 터지게 웨쳐온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서는 역제는 고사하고 화를 불려오는 악책이라고 비난한다.

경제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백성들은 살기 힘들다고 도처에서 《윤석열퇴진》을 부르짖는다. 어쩌다가 《국회》를 찾아가 연설을 하였는데 《안보의 위협》을 하자고 재편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온다.

(이제야 내 쓸모를 알았다 이거지. 이번 기회에 《한일정보보호협정》도 되살리고 《관계개선》문제로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른 뾰족한 수가 없지 않은가. 다른것은 몰라도 되든 안되든 북을 물고늘어질수 밖에.

어느 누가 말했던가?

—《담대한 구상》은 허망한 구상이니 《대북정책》을 다시 작성하라— 미친놈, 다시 작성할것같은 《대북정책》을 공모하지부터 않았을것이다.

바라, 태평양너머로 허위단심 찾아갔을 때 비록 48초이지만 미국 대통령감각까지 친히 만나주었고 《동맹강화》를 약속해주지 않았던가. (그래그래, 날 보고 눈은 소경, 귀

를 막을 지어야 한다.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농칠수 없는 명줄이다. 우리 조상들이 일깨워주지 않았던가. 미국과 일본은 갖근과 같이 한쪽만 떨어지면 권력이라는 것을 부지할수 없다고.

박근혜처럼 미어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게말자. 외로 가는 모로 가는 종착점까지 가는게 기본이지.) 권력과 부귀에 대한 욱망은 굴뚝같이 지체에 있는 북을 생각하면 또 풀이 췌서난다.

참 이상하기만 하다.

수십년동안 서방세계가 달라붙어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해오았지만 북의 자력갱생, 자급

자족이라는 내성만 더 강하게 하고 행능력도화만 축진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재제》만이 북을 바꿀수 있다는 《신화》는 북특유의 강력한 정치체제와 생존방식을 1%도 인식하지 못한 한 일인들이 착각한 만화가 되었을 조건반도주변국들이 《형력》하면 《북의 변화》를 이끌수 있을것이라는 《착상》도 국제정치의 려학적관세를 착각한 어리석은 착오라고 세인이 말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지물은 집권해서부터 얼음진 비탈길로 정진없이 미끄러지는 암초처럼 멈춰설줄 모르는데 북의 경경고압은 얼천데 더친격, 설상가상이다.

눈덩이 굴러가며 불어나듯, 아니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는 북의 힘, 더 견고해지는 북의 국제적위상.

(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커가는것은 불안이고 나오는긴 한숨뿐이다. 그런데다 《퇴진하라!》, 《탄핵》답이다》라는 민심의 토로가 《룡

와대》의 치마까지 울린다.

리명박이처럼 되지 않으려고, 박근혜처럼 되지 않으려고 이곳 통상기술에 이사짐을 편지 몇달밖에 안됐는데 벌써 퇴진하고 탄핵세례를 받으라니 민심이 참 가혹하지.

(이러다가 정말 내가 누구처럼 초불의 바다에 타죽게 되거나 앉겠는지?)

이리 뒤척 지리 뒤척 비몽사몽한 가운데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

최고량을 차고 꺼져부정한채 쓰러질듯 비칠것이라는 리명박이 아닌가.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뒤에 또 누가 있다.

《503》번호를 단 수인북—박근혜이다.

그런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갈팡질팡 헤메비는 그의 뒤에는 운동 불길이다. 초불바다이다.

뚜벅뚜벅—

(아니? 전두환평갑까지, 그뒤엔, 저런 박정희의손도...)

전두환의 손에 들려있것은 제 유골함이 아닌가.

(물일 땅 한뼉이 없다고 날 찾아오는데 어니야? 그렇다고 나한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담. 나도 언제 저신세가 될지 모를 판인데.)

그건 그렇고 저 《유신》어른의 손에 쥐어진진 도대체 뭐냐? 저런, 피가 똑똑 흐르는 권총이 아닌가.

(저, 저— 피문은 총구를 나한테 겨누면 어찌자는거야. 안데.)

땅—

(으악—)

(휴— 꿈이었구나.)

내려다보니 슬픔이 바닥에 나딩굴고 피땀액체가 바닥을 질척하니 적시고있다.

식민지주, 대결광신자의 얼흔을 빼며 《룡와대》의 밤은 깊어만 간다.

김정혁

## 민심은 역도를 버렸다

집권후 출몰 반역행위만을 일삼아온 윤석열역적패당이 날이 갈수록 인민들로부터 고립배경당하고있다.

역적패당이 임버릇처럼 위대던 《상식과 공정》이 빚어냈기란 정치실종, 경제위기, 민생과판, 《안보불안》뿐이다.

—윤석열에게 기대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역도의 무지와 무능, 독선과 오만이 빚어낸 참담한 현실을 체험하며 남조선인민들이 내린 결론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각계층이 윤석열역도의 각종 정책을 반대하는 새로운 투쟁단체들을 결성하고 반《정부》투쟁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는것이다.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안도 각계층 인민들은 《포팔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만 5세 초등위 학자지를 위한 범국민련대》를 비롯한 새로운 단체들을 결성해내 기조하여 로동, 교육, 외교, 국방 동족대결 등 당국이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을 투쟁과피로 정하고 반윤석열투쟁을 힘있게 벌려

고있다.

이 투쟁에는 6.15남측위원회와 진보련대, 민주로총을 비롯한 진보적인 운동단체들은 물론 야당들과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련대, 《한민족독교교회협의회》 등 시민, 종교단체까지 적극 합세해나서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난 각계층 군중들은 집중투쟁, 련대투쟁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투쟁의 도수를 높이고

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서울시청앞과 미국대사관앞, 경강남도 창원 등 각지역에서 동시에 《효순미 20주기 초동불정진 계승 6.11평화대회》, 《반미자주 로동자대회》, 《경남반전평화행동》 등 다양한 명칭의

투쟁을 조직하고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제지와 합동군사연습중지, 남조선강점미군철수를 요구하여 집중적인 반미,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만 5세 초등위학자지를 위한 범국민련대》가 조직한 윤석열역적패당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반《정부》투쟁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합세하였는가 하면 8.15를 계기로 진행된 민주로총

의 통일선봉대활동에 녀성, 청년, 진보정당과 《한국로총》까지 망라되어 미군기지에 물러가 반미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특히 기자회견, 성명발표, 1인시위, 이어받기투쟁, 서명운동, 풍자만화게시, 《대자보》붙이기, 초불대행진, 천

막물성, 미군기지앞에서 드러내기, 미군기지에로의 돌입, 윤석열역도를 징벌하는 의식 등 투쟁방법도 다양하게 벌어져 각계층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는 반《정부》투쟁은 무지무능과 오만으로 남조선의 정치와 경제 등 모든것을 망쳐놓은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불만과 분노의 폭발이다.

윤석열역도를 그대로 두려는 남조선사회가 리명박, 박근혜등의 집권시기보다 더 험악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될것이라는것이 남조선의 한결같은 민심이다.

본사기자 김영준

투쟁에 걸친한 윤석열역적패당이 최근 《비상경제인생회의》를 보도한다 어떤다 하며 분주당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심각한 집권위기에 서 벗어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반《정부》투쟁은 윤석열역적패당에게는 앞날이 없으며 그들이 더는 수습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심은 이미 역도를 버렸다.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은 독재《정권》의 파멸은 불가피하다.

본사기자 김영준